

공동체 소식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 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셨습니다. ※ 매일미사 책 43쪽 참조.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8/ 8(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8/10(목):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8/11(금):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2017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9/3(주일) 오전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임명 예고

- 일시 : 8/13(주일) 예정. - 대상 : (총무)김대연 요셉,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선교)박태주 로마노, (구역)이영민 엘리사벳.

캔사스 한인 공동체, 2017년 소프트볼 경기 출전

- 일시 : 8.12(토)

8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8.12(토) 11:30부터.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Values: 41, 217, 168, 31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Values: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Values: 김명은 안젤라, 김정은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 주, 차 주. Values: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김수연, 최선윤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 주, 차 주. Values: 김병철 베네딕도, 이우영 가브리엘, 김병철 베네딕도, 강영진 라파엘

우리들의 정성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7/30, 53명, 280달러, 1,540달러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8월 6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사도들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줄 때에,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체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림 묵상

베드로와 예수

"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마태 14,31-32)

캄캄한 밤의 풍량은 자연의 위협, 악의 세력,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세상 안에 서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9-10.13-1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주님은 임금입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

제 2 독 서 :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1,16-19 <우리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습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보니 거룩한 변모 사건은 구약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 한 가지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말도 채 끝내기 전에 구름이 그들을 덮은 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하느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구름이 산을 덮는 것은 하느님의 현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탈출 13,21 참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계시된 바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첨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이 말씀은 신명 18,15에서 모세가 전해준 말을 떠올려 줍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실, 마태오는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마태 6,24) 하지만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단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마태 17,5) 실제 시나이 산 위에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와 엘리야가(탈출 34,1-28; 1열왕 19,1-18 참조) 타보르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에서 계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장면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 땅에

엎드린 채 두려워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전해 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1독서의 다니엘 예언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다니 7,13-14)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임금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청에 대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음을 발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의 청에 대한 답변인 듯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온 세상의 임금이지만, 그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날 것이니, 영광스러운 이 모습만 보고 너무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신의 증언을 듣고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받아들여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아들, 곧 만군의 임금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과 권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교회의 옛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당신의 수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일어났다고 믿어져 왔기에, 교회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14일)로부터 40일 전(8월 6일)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력의 배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십자가 사건’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사의 문맥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세 공관 복음서에 공통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사 앞의 전개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예고’가 따르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 따르고, 이어서 오늘의 복음 본문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사가 이어지는 문맥이 세 공관복음서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맥의 전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십자가 사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복음 본문을 보면 그 서두에 ‘옛 새 뒤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시간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축제 ‘초막절’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라고 운운한 것도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배경과 어울리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결국 예수님의 육화와도 연

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라는 표현에서 ‘사셨다’라는 단어(σκηνωω)의 원래 뜻을 직역하면 ‘텐트를 펼치다, 초막(장막)을 치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肉)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다” 정도로 직역되는데, 여기에서 ‘초막’과 ‘육화’의 연관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저 먼 옛날 이집트 탈출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초막절 축제가, 한편으로는 장차 ‘저 세상’에서 살게 될 하느님의 장막을 미리 보여주는 ‘종말론적 희망’의 축제이며, 결국 그 ‘완전한 성취’를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화로말미암아 완전한 성취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지나가는 ‘하룻밤 숙막’일진대, 일상의 크고 작은 아픔과 질곡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향하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독려합니다. 황금이 최고신(神)의 자리에 놓여있어 끝을 모르고 치달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쟁에 지치고 갈 곳 잃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일상에서 우리가 바치는 작은 십자가들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장막’에 이르는 KEY임을 오늘 복음은 묵상케 합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거룩한 삶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잃지 않는 것

하느님 나라로 떠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 가는 것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마태 17,4)

### 삶의 거룩함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